

나주시, 음성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막바지 총력

올해 하반기 '사매길·향교길 특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 본격 착수 100년 된 정미소 복원 '난장곡간'·고살길 600m 흙돌담길 조성 등

나주시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음성권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주시는 올 하반기 음성권 도시재생사업으로 '사매길·향교길 특화거리 조성' 등 3개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음성권 도시재생은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를 비전으로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공모사업 공모 일반 재생형 부문에 선정됐다.

전년 목사(敎使)고를 나주의 유구하고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자산을 활용한 △핵심거점 재생 △연계망 활용 △박물관 활용 △

행복한 삶터 만들기 △상권 활성화 등 총 100억원 규모 5개 분야 11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 올해까지 추진된다.

대표적인 사업 성과로는 핵심거점 재생사업으로 추진한 옛 '나주정미소' 복원을 꼽을 수 있다.

나주시는 지난 해 광주MBC, 나주읍성도시재생협의체와 협력을 통해 100여년 전 호남지역 최초 쌀도정 공장 기능을 했던 옛 정미소 공간을 문화·예술·공연 복합공간인 '난장곡간'으로 리모델링했다.

난장곡간은 곡물을 쌓아둔 공간에 음악을 의미하는 곡(曲)을 결합

시켜 '공연을 통해 음악과 추억을 보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개관 이후 MBC문화콘서트 공연장 및 주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무관중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구부러진 골목길 오래된 집집마다 사면이 깎인 나주읍성 내 고살길 600m 구간에는 흙돌담길을 조성했다.

특히 돌담길 구간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해 소담소담 낮은 흙돌담길과 담장 너머 보이는 한옥 기와장 풍경이 어우러진 고즈넉한 야간 산책로로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올 하반기 음성권 도시재생 연계망 활용 세부사업인 '사매길·향교길 특화거리 조성공사'를 이달 착공했다.

'음성관-서성문-향교'를 잇는 노후화한 보·차도를 개선하고 사매길에 얽힌 역사적 스토리를 활용해 11월 말까지 명품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나주천변길을 산책코스로 만드는 '나주천 나들이길 조성사업'은 8월 착공한다.

기동취재본부



당도 높은 화순 복숭아 대형마트 납품 시작

8월까지 매일 2.5t 납품

고품질, 고당도로 유명한 화순 복숭아가 여름 소비자 입맛 공략에 나섰다.

화순군은 7월 말부터 8월 하순까지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광주·전남 대형마트에 화순 복숭아를 매일 2.5t 이상 출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경제지구 화순연합사업단(이하 화순연합사업단)은 재배 농가로부터 원물을 받아 도곡농협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동선별 과정을 거쳐 대형마트에 화순 복숭아를 납품하기로 했다.

화순연합사업단은 23일 도곡농협APC에서 화순 복숭아 첫 출하식(550박스)을 열고 대형마트 납품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군은 화순 복숭아의 품질 향상과 판로 개척을 위해 화순연합사업단을 중심으로 한 공동선별, 공동출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50개 농가가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에는 복숭아 선별기 1대, 올해는 비파괴당도 측정기 1대(1억 원)를 지원했다.

화순연합사업단은 지난해 32개 공동선별·공동출하, 1억1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올해는 공동선별·공동출하 70t, 2억5000만원 매출을 목표로 ▲복숭아 농가 조직화와 규모 확대 ▲공동선별을 통한 균일한 품질 유지 ▲대도시 중심 시장개척과 판로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중대형 마트 직거래 비율을 향후 3년 안에 20% 높여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적정 가격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화순 지역에서는 복숭아연합회 소속 315개 농가에서 매년 2070t을 생산하는 등 전남도 복숭아 생산량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입 과일 확대·국내 농산물 과잉·급변하는 식문화 등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 조직화·산지유통 시설 지원 사업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곡성군, 꿈 요리하는 청소년 드림레시피 개소

전통시장 유희점포 리모델링해 창업 체험 공간 조성



곡성군이 23일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에서 청소년 창업체험 및 진로교육 공간인 드림레시피 개소식을 열었다.

드림레시피는 청소년들의 꿈을 요리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동안 곡성군에 소재한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의 학생들은 현장 체험을 위해 광주의 영업장소를 대거해 활용해왔다.

드림레시피에는 1회 10인 이상이 음식 조리 및 음료 제조가 가능한 기기와 테이블이 갖춰져 있다. 전남조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서 교사 지도하에 현장실무 교육을 받으며 취업역량을 키우게 된다.

특히 곡성군의 특산물인 멜론과 토란 등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 및 판매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곡성=김광휘 기자

담양군, 고품질 쌀 안정생산 위해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 당부'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본격적으로 벼 이삭 패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쌀 안정생산에 필요한 벼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용 지도에 나섰다.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일반 품종의 경우 이삭 패기 25일 전에, 신품종과 같이 키가 크고 쓰러짐에 약한 품종은 15일 전에 사용하며 이모작은 이보다 8~9일 늦게 사용하면 된다.

이삭거름 시용 기준량은 약 1,000㎡(300평) 당 NK복비(N18%) 11~12kg, 또는 맞춤형비료(30호) 15kg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논의 거름기가 너무 많아 잎

색이 짙으면 염화加里 4kg만 사용하는 것이 병해충과 도복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삭패기 15일 전부터 이삭 패 후 10일까지는 벼가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로 논물을 2~4cm 깊이로 걸러대기를 해 뿌리의 활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장마철 잦은 비로 벼가 웃자라거나 약해져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흑명나방 등 병해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논을 자주 둘러보고 방제해줄 것을 권장했다.

담양=박종영 기자

장성군, 쓰레기 없는 '쾌적한 황룡강' 만든다

장성군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에 유입된 부유 쓰레기 수거에 나섰다.

군은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4일까지 '하천 부유 쓰레기 일제 청소 및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황룡강 일원 및 소하천 주변, 계곡, 농업용수로 등에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할 계획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정화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화순=박순철 기자

"생활 속으로 들어 온 청탁금지법"

구례군,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특강, 성인지교육

구례군은 최근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한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동기준과 부정청탁에 대하여 간부 공무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생활 속에서 발

생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간부공무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길잡이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문화관광의 중심지

영암

영암군 YEONGAM-GUN

기외 과장 영암!
문화관광 중심도시!

평범한 속

일상속

남다른 여행

여행을 떠난다는 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월출산국립공원/한국트러트가요센터/월출산 기차랜드